



전세버스 운임신고 의무화 추진

제주도, 어제 전세버스 운임 요금 신고제 원안 가결 업계 과당 경쟁 방지·종사자 적정 수익 보장 차원 “내부 결재 등 행정 절차 거쳐 다음주 최종 운임 공개”

제주 전세버스 업계의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 운수 종사자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운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전세버스 업체가 제출한 신고안을 토대로 결정된 최종 적정 운임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2023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전세버스 운임 요금 신고제’(안)에 대해 ‘원안 가결’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도내 5개 전세버스 업체를 대표하는 전세버스 조합으로부터 ‘요금 신고안’을 제출받았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현행 ‘자율제’로 운영 중인 전세버스 운임

적용 방식이 ‘신고제’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대중교통인 택시, 시내버스 등과 달리 전세버스는 업체가 운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에 업체 간 저가 경쟁뿐 아니라 코로나 19와 고유가 상황 등 외부 요인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제주도는 도내 전세버스의 적정 운임 산정을 위해 2021년 5월부터 ‘전세버스 운송원가 및 운임 산정 용역’을 진행해 지난해 완료했다. 용역을 맡은 제주연구원은 전세버스 운송원가를 분석해 7개 시나리오를 가정, 적정운임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전세버스업체에 대한 운임·요금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

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됐다. 조례안은 현행 ‘자율제’로 운영 중인 전세버스 운임을 ‘신고제’로 바꾼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제주도가 용역을 통해 산출한 요금제 가운데 업체별 가동률에 따른 선택을 통해 신고를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이날 제주도는 전세버스 업체가 제출한 신고안 등 교통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다뤄진 구체적인 요금은 밝히지 않았다. 평균 요금은 현재 자율 요금제로 운영 중인 평균 요금 수준으로 결정했으며, 물가 상승률과 항공료·숙박료 증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교통위원회의 성격이 심의·의결 위원회가 아닌 자문 성격의 기구”라며 “내부 결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주 중 고시, 보도자료를 통해 (결정된 운임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더불어민주당 제주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외동포청 제주 배치를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실 제공

“재외동포청 반드시 제주에 설립돼야”

제주 국회의원·도의원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재외동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소재지 선정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재외동포청 제주 배치를 강력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포시)·송재호(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등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외동포청은 반드시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신설

되는 재외동포청은 오는 6월 5일 출범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제자유도시 제주가 재외동포청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모 든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는 중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행중이며 국제공항, 크루즈항 등이 있어 접근성과 편리성이 매우 뛰어나다”며 “재외동포청은 기존 재외동포재단이 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지자체간 과도한 유치 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 갈등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재외동포청은 기존 재외동포재단이 승격하는 만큼 기존 자리에 확대 설립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며 “재외동포재단은 2010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됐고, 이 계획에 따라 2018년 7월 제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화·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포럼 정상급 인사 누가 참석하나

김진표 국회의장·구테호스 UN사무총장 등 예정

오는 31일부터 열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정상급 참석자들의 면면이 공개됐다.

‘인도-태평양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제주포럼은 처음으로 국회 차원의 참여가 이뤄지고 아세안을 넘어 아랍지역까지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 발굴의 기회가 마련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정상급 인



구테호스 UN사무총장

사를 보면 김진표 국회의장과 안토니우 구테호스 유엔 사무총장이 처음으로 참석하고 노벨평화상 수상자 (1996)로 제주포럼 단골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제 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마틴 로말데즈 필리핀 하원의장,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줄리아 길라드 전 호주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의 장·차관급 인사로는 올해 제주4·3평화상 수상자인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 장관, 까시 피툼 야 전 태국 외교부 장관, 류편민 전 유엔 사무부총장, 엘리슨 후커 세계전략연구소 수석부회장, 아세안 9개국 의원 대표단과 아세안국가 친선협회 소속 김기현·윤호중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포럼 개막식 참석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참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위영성기자

수망 태양광발전사업 착공 ‘눈앞’

제주도내 최대 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중 도내 최대 규모인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이 조만간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를 3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은 제이원주식회사가 서귀포

시 남원을 수망리 233만7352㎡ 부지에 10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139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7월까지다.

이 설비 용량은 도내 태양광발전시설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이에 환경 훼손 논란에 이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이슈 증가 등 과잉전력 문제 심화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사업 시행 시 생태

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발전시설의 폐기물인 태양광 폐패널 처리 방안 문제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통과되며 사업에 탄력을 받았다.

제주도는 오는 23일까지 사업을 열람공고하고, 이후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 시행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다혜기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6월 중 개통

제주도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6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제주도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총 279억원을 투자해 지방도 1132호선(일주도로)에서 민군복합항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짓는 공사다.

이를 통해 전체 도로연장 2.52km

중 왕복 4차로에 해당하는 2.08km은 도로를 신설하고 교량 1개소(55m) 설치하며, 왕복 2차로 구간인 0.44km에는 기존도로를 정비한다.

제주자치도는 해당 구간의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후 문화재청과 문화재 조사완료 신고 협의를 추진 중이다.

강다혜기자

주택·아파트·상가 빌딩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시설물·금속·창호·도장·방수
조경시설물·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 4층

킴/건축디자인

010-4324-7080

F:064)723-1045 / E:ehdrb0064@hanmail.net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酉 一 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정소

신축 / 중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5월 가정의달 부모님을 위한 선물증정 이벤트

① 20만원 상당 삼삼배양금 ② 15만원 상당 uv전지습기제거제
*1번 소진시 2번 사은품 제공합니다.

그랜드보청기
하트브랜드 대상!!

2021 107184
하트브랜드 대상 1위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샴촌들 흔저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시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가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그랜드보청기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리마을소
한라체육관
● 한국병원
국제보청기(국제기계2층)
신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